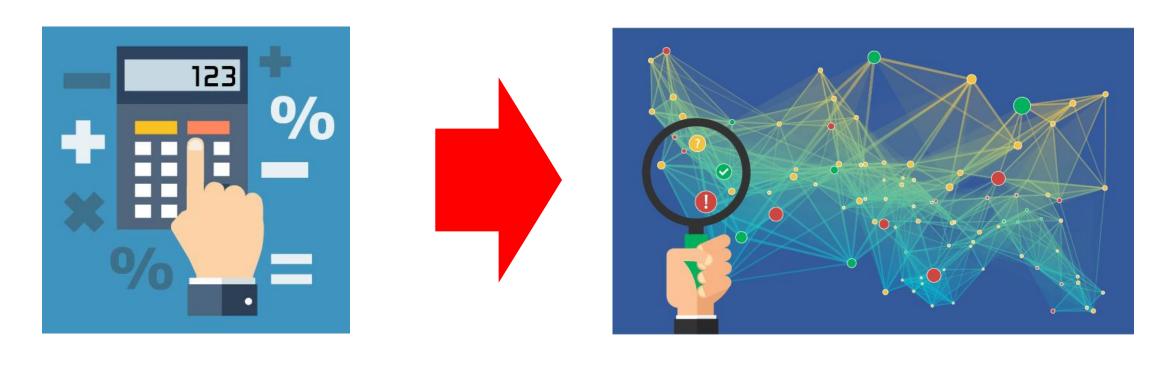
이번 시간에는 data architecture 를 하겠습니다

근데 이제 Netflix를 곁들인.....

강사 : 윤성국

application system의 패러다임 변화



Compute-intensive

Data-intensive

standard building bloc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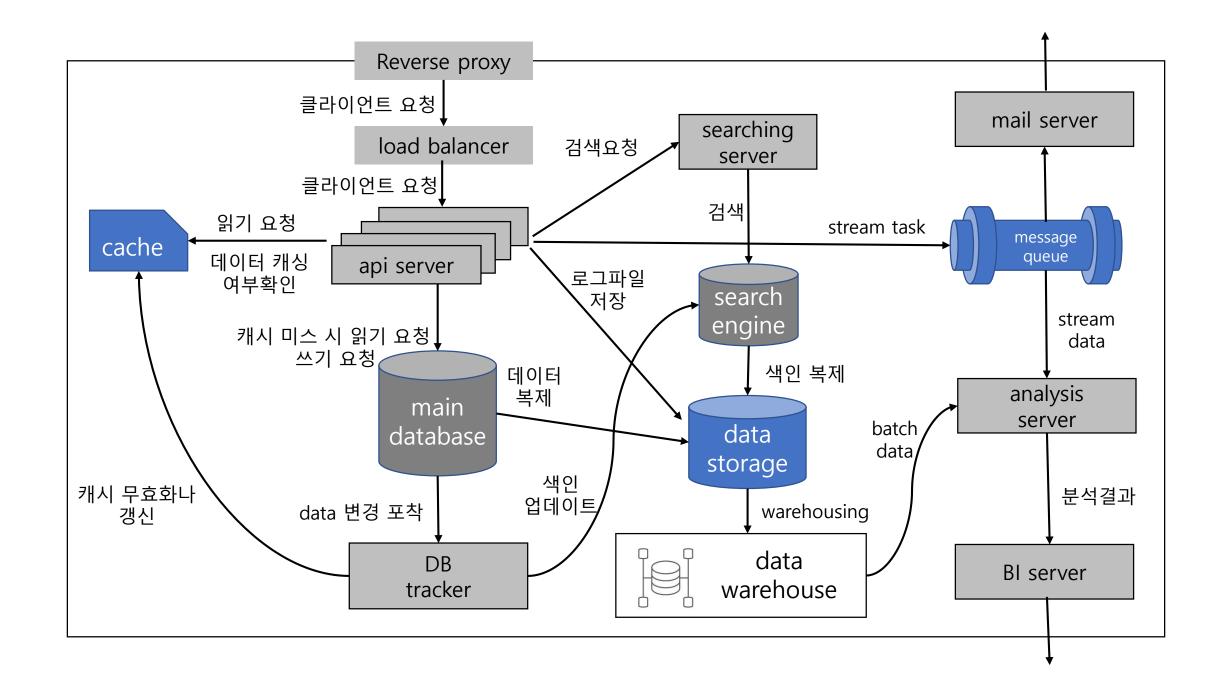
- application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저장()
- 데이터 읽기 속도 향상을 위해 수행결과 기억()
- 키워드로 데이터 검색하거나 필터링 가능하도록 제공(
- 비동기 데이터 처리를 위해 프로세스간 메시지 송수신(

data system

왜 각자 성격이 다른 tool들을 하나의 system으로 묶을까?

• 데이터 도구들의 use-case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. (MQ로 쓰는 redis, 데이터 지속성 보장하는 kafka)

• work를 task로 세분화하여 관리 (



data system에서 신경써야할 점

Reliability

Scalability

Maintainability

Reliability

- 신뢰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치
 - application은 user가 기대한 기능을 수행한다
 - system은 사용자가 범한 실수나 예상치 못한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허용
 - system 성능은 예상된 부하와 데이터 양에서 필수적인 사용성 만족
 - system은 허가되지 않는 접근과 오남용 방지
- fault-tolerant(내결함성)
 - fault(결함)는 failure(장애)가 아니다 -> 엔드유저의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
 - 모든 fault를 견딜 순 없다. ->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 유형에 대처
 - 고의적 fault 발생으로 내결함성 확보 -> 어설픈 오류처리보단 확실한 에러
 - 결함해결보다 예방이 중요할 수 있다 -> 보안이슈

hardware fault

- hard disk의 평균 10~50년 ->10000개 RAID면 하루에 하나씩 박살
- redundancy 추가
 - disk RAID
 - 파워 이중화, CPU hot-swap
 - 예비전력 발전기 이중화
- 대용량 분산 데이터 시스템
 - 소프트웨어 fault-tolerant으로 해결
 - 단일 장비 신뢰성보다 유연성과 탄력성
 - 더 많은 하드웨어 redundancy 추가
 - 무 중단 업그레이드

software fault

- systematic error
 - 모든 인스턴스 노드가 한꺼번에 죽는 소프트웨어 버그(리눅스커널 윤초버그)
 - 공유 리소스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리소스를 잠식해버리는 프로세스
 - 시스템 응답속도가 느려져서 반응이 없거나 잘못된 응답 반환
 - 시스템의 한 요소의 fault가 다른 요소의 fault로 전파되는 cascading failure
- 특정 상황에만 버그 재현이 발생하여 버그 재현율 떨어짐
- 테스트, 프로세스 격리, fail back, fail over, 모니터링 등으로 해결

human fault

-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설계, 추상화 layering, API, 인터페이스 제한
- 운영과 별개로 개발 및 실험 sandbox 제공
- 유닛테스트, 프로세스테스트, 시스템 통합 테스트, 운영테스트
- 설정 오류에 대한 rollback, rollout 제공
- 디테일한 모니터링 metric 설계
- 조작 교육 및 실습

Scalability

- 지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앞으로도 잘 돌까?
- 1만명에서 10만명 100만명 1000만명으로 증가하고 데이터도 그만큼 계속 증가한다면?
- 확장성은 단순히 system에만 국한되는 특성이 아님
- 확장성을 논한다는 것은
 - X시스템은 확장 가능하다, Y시스템은 확장 가능성이 없다 -> 의미없음
 - 시스템이 특정방식으로 커질 때에 대처하기 위한 decision making
 - 추가되는 데이터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 compute 및 storage 투입 정책

load description

- 부하가 2배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? -> 2배라는 기준은?
- 부하를 기술하는 metric으로 삼는 것 -> load parameter
- load param : 초당 요청수, DB R/W rate, active user, cache 적중률
- 가장 적합한 parameter선택은 시스템 설계에 따라 달라짐
- 평균이 metric 기준이 될 수도 있고,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

load description

- twitter의 경우
 - tweet 작성 : 새로운 메시지 게시(DB write연산, 평균 4k/s, 피크 12k/s)
 - timeline : 팔로우한 user tweet list(DB read연산, 평균 300k/s)
 - tweet 작성 처리는 쉬우나 follower가 N:M이기 때문에 read요청이 많아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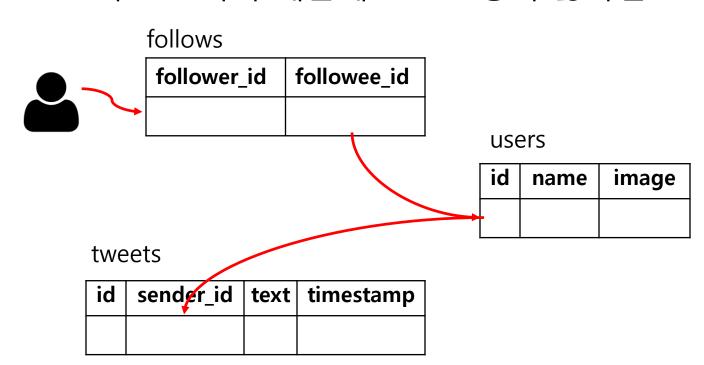
INSERT INTO twwets VALUES (sender_id,tweet_text,timestamp)

SELECT tweets.*,users.* FROM tweets

JOIN users ON tweets.sender_id = users.i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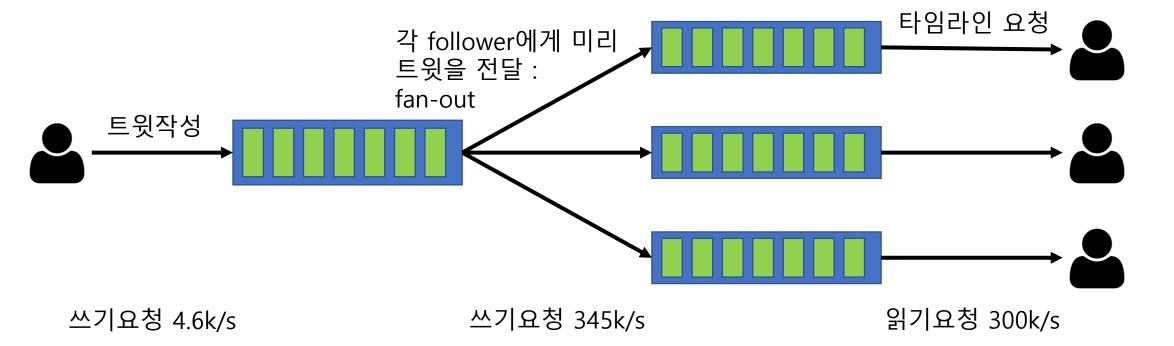
JOIN follows ON followee_id =users.id

WHERE follows.follower_id =current_id



load description

- twitter의 경우
 - 읽기 연산이 쓰기 연산보다 초당 요청이 훨씬 많다
 - 병목은 follower join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
 - 쓰기 연산 효율을 좀 포기하더라도 읽기 효율을 올릴 수 있다면?
 - fan-out : 트윗을 작성하는 순간 모든 follower에게 송신



부하대응접근방식

- scale up / scale out
- automation elastic system / 수동 scale out
 - -> 자동이라고 다 좋을까?
- read 양/write 양/data 양/ data 복잡도 / 응답시간 / 접근패턴에 따라 구성해야 할 아키텍처가 다 다르다.
- •실버블렛은 없다

Maintainability

Operability

simplicity

evolvability

operability

- 모니터링 / 결함 발생 시 빠르게 복구
- 시스템 장애, 성능 저하 문제 tracking
- 보안 패치 등을 포함해 플랫폼 최신버전으로 유지
- 서로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해 문제 발생 가능성 있는 변경사항 사전 차단
-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여 사전 해결
- 배포, 설정 관리 등을 위한 사례와 도구 확보
- 마이그레이션 등 복잡한 유지보수 수행
- 설정 변경으로 생기는 시스템 보안 유지보수
- 예측 가능한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정의
- 운영 문서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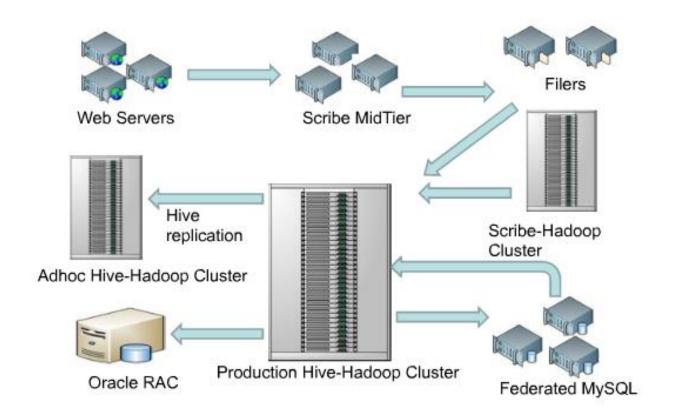
simplicity

- 복잡하다고 좋은 아키텍처가 아니다
 -> 앞에 아파치 적힌 오픈소스 덕지덕지 펴 바를 필요가 없다
- 복잡도 유발 : 모듈간 강한 커플링, 복잡한 의존성, 일관성 없는 네이밍, 성능 변태의 성능 삽질, 야매 해결코드
- 우발적 복잡도를 제거해야 한다 -> 추상화
- 지나친 추상화는 다시한번 복잡도를 높인다. (스파게티 피하려다 만난 라자냐)

사례 분석 : 페이스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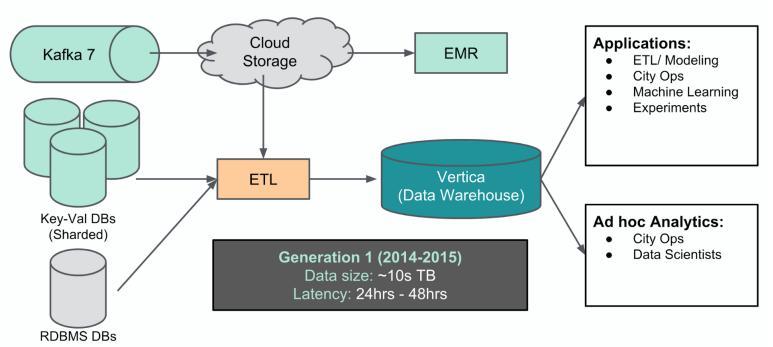
facebook

Data Flow Architecture at Facebook



사례 분석 : Uber

Generation 1 (2014-2015) - The beginning of Big Data at Ub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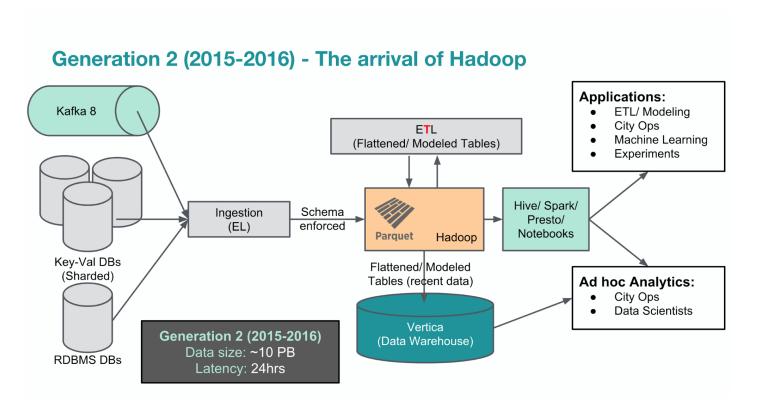


- data를 한곳으로 모으고 엑세스 간소화
- vertica를 datawarehouse로 사용
- 쿼리엔진 인터페이스로 SQL 표준화

한계

- formal한 스키마 통신 메커니즘이 없음
- source data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함
- ingestion job들이 프로듀서 코드변화 에 유연하지 못함
- 중양집중식이었기 때문에 수평적 확장 에 한계

사례 분석 : Ub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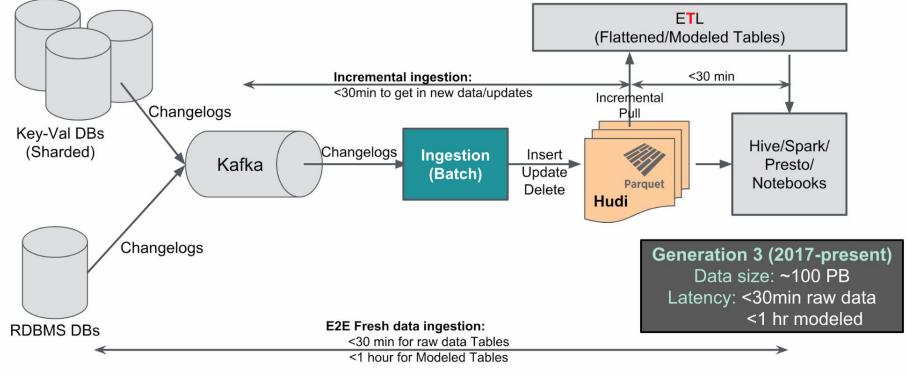


- hadoop 에코시스템으로 rebuilding
- hadoop에서만 데이터 모델링 및 변환 이 발생하도록 하여 확장성 보장
- Apache Parquet의 표준 컬럼 파일 형식

사례 분석 : Uber

Generation 3 (2017-present) - Let's rebuild for long term

Incremental ingestion:



사례 분석 : 넷플릭스

